

한자어 부사의 형태론적 패턴에 대한 고찰

두 청
(강원대학교)

〈국문 초록〉

국어 형태론적 패턴에는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연쇄적 패턴과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는 비연쇄적 패턴이 있다. 이 논문은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한자어 부사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연쇄적 패턴과 비연쇄적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패턴 유형별로 분류하면 한자어 부사의 연쇄적 패턴은 파생과 합성으로, 비연쇄적 패턴은 전환, 중첩, 혼종어로 구성된다.

파생 한자어 부사는 주로 2음절 이상의 어기와 결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접사의 판별기준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성 한자어 부사의 유형은 크게 직접 구성 요소의 자립성 유무와 직접 구성 요소의 관계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전환은 어기의 형식이 같은 채 접사를 결합하지 않고 품사의 성질을 바꾸는 패턴이다. ‘명사-부사’의 통용과 ‘수사-관형사-명사-부사’의 통용이 있다. 중첩은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ABAB형’ 중첩, ‘AA형’ 중첩, ‘ABB형’ 중첩이 있다. 혼종어는 추가 유형으로 단어들을 통해 서로 다른 어종의 언어 요소 결합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한자어 부사, 형태론적 패턴, 연쇄적, 비연쇄적, 단어들

Contents

1. 서론
2. 형태론적 패턴의 유형
3. 한자어 부사의 연쇄적 패턴
4. 한자어 부사의 비연쇄적 패턴
5. 결론

1. 서론

국어 형태론적 구조는 파생법과 합성법에 의한 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론적 패턴이 존재한다.¹⁾ 본고는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연쇄적 패턴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그렇지 않는 비연쇄적 패턴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어 부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한자어 부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형태론적 패턴 측면의 연구는 아주 드문 실정이다. 최근에 한자어 부사에 대한 논의로는 정민영(1994)은 일부 부사를 대상으로 한자 혼종어와 영 파생어의 형성, 그리고 한자어가 본래부터 부사인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박지연(2011)은 형태소 분석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한국어와 일본어 부사의 조어 구조를 분석하였다. 왕단단(2011)은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어 부사를 대상으로 형태, 의미, 통사론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Jin Hongmei(2013)는 국어 파생부사의 형태론적 특징을 논의하였다. 임연(2015)은 한자어 부사의 수량을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부사의 구조와 특징을 논의하였다. 표시연(2017)은 형태론적 패턴 중 몇 가지 유형만 언급하였을 뿐이고 부사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기존연구에서는 한자어 부사에 관한 통사론, 형태론적 특성 논의가 있지만, 형태론적 패턴 측면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비연쇄적 패턴을 통해 단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관계를 기술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립국어원 편(1990) 『표준국어대사전』²⁾에 표제어로 등재된 한자어 부사어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형태론적 패턴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과 같이 오규환(외)(2015:86)에서 밝힌 현상은 단순히 파생법이나 합성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 (1) a. hammer (명사), hammer (동사)
- b. be (큰), be-be (적당히 큰)

1) Martin Haspelmath (외), 『Understanding Morphology』(오규환(외) 역, 『형태론의 이해』, 도서출판 역락, 2015), 81쪽.

2) 앞으로는 『표준』으로 한다.

기존 논의에 따라 (1a)는 형태론적 구조에서 사용하는 영 파생접미사가 덧붙여 명사부터 동사로 파생시키고, (1b)는 어간 전체적으로 반복하여 반복 합성어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기술에는 문제가 발견된다. 동일한 형태이지만 기능이 다른 품사로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첩된 형식에서는 어간이나 어기가 어떻게 복사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연쇄적 패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본고는 (1)처럼 연쇄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해 형태론적으로 서로 공통점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을 통해 한자어 부사의 관계를 포착하기로 한다. 특히 국어 혼종어는 형태론적 작용 아래의 추가 유형으로 기존 논의에 따라 파생 혼종어와 합성 혼종어로 구분하면 비연쇄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자어 부사의 형태론적 구조를 분석하여, 연쇄적 패턴과 비연쇄적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형태론적 패턴의 유형³⁾

오규환(외)(2015:23)에서 형태론적 구조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음운론적인 구조와 다른 하나는 의미론적이 부문이다.”라고 한정하였다. 따라서 단지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연쇄 규칙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분석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1)과 같이 형태소가 첨가되는 것보다는 관련된 단어들이 어느 규칙으로 공통된 자질을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오규환(외)(2015:616)의 논의에서는 형태론적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이 서로 대응하는 단어들 사이에 보이는 패턴이다. 영어 ‘tap’ 뒤에 ‘-s’가 붙으면 복수 의미를 표현한다고 할 수 있는데, ‘lapse’의 ‘s’는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고 이와 같은 단어는 형식과 의미에서 부분적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형태론적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형태론적 패턴은 형식적과 의미적 측면의 서로 유사성을 가져야 형태론적 구조를 가진다.

형태론적 패턴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보편적인 설명을 할 수 있고, 파생법과 합성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유형들까지 다 포괄하기 때문에 본고는

3) 오규환(외), 앞의 책, 22쪽.

‘형태론적 패턴’을 사용하여 한자어 부사를 분석하기로 한다. 전 세계의 언어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면, 형태소⁴⁾는 자주 나타나는 형태론적 패턴의 특수하위 유형일 뿐이다.

오규환(외)(2015:82)에서는 “형태론적 패턴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연쇄적 패턴과 그 이외의 경우인 비연쇄적 패턴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한정하였다. 연쇄적 패턴은 둘 이상의 형태소가 차례대로 떨어져 놓이는 것이다. 주로 접사 첨가와 합성으로 구성된다. 접사 첨가는 접두사 첨가와 접미사 첨가 등 하위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합성은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2)와 같이 접사 첨가와 합성이 해당된다.

(2) a. 한생전(限生前)

b. 연일연야(連日連夜)

‘한생전(限生前)’을 형성하기 위해 접두사 ‘한-’을 통해 어근 ‘생전’과 결합하여 형성한다. ‘연일연야(連日連夜)’는 명사인 ‘연일’과 ‘연야’를 결합하여 형성하는 합성어이다.

반면에 비연쇄적 패턴은 차례적인 배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어기변동(구개음화, 전설음화, 자음 복사, 유성음화, 약화, 자음복사, 장모음화, 단모음화, 강세 전이, 성조 변화, 도치, 삭감 등), 중첩, 전환, 혼성어 등이 비연쇄적 패턴에 해당한다.

다음 절에서는 한자어 부사에 해당하는 형태론적 연쇄적 패턴부터 분석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3. 한자어 부사의 연쇄적 패턴

한자어 부사의 연쇄적 패턴은 형태소를 바탕으로 연쇄 규칙을 통해 이루어진 패턴이다. 연쇄적 패턴은 접사 첨가와 합성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

4) 형태소 연쇄로 파생과 합성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어기 변동과 전환을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는 국어 한자어 부사를 (3)과 같이 음절수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 구성 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파생과 합성으로 나뉜다.

(3) a. 2음절어

당각, 분명, 유독, 일익, 즉각, 항상.

b. 3음절어

가부간, 기억시, 다불과, 도대체, 매인당, 무작정, 무조건, 불과시, 불연측, 어언간, 여하간, 역여시, 재일차, 조만간, 진소위, 차소위, 차역시, 천세후, 하여간, 한생전, 한평생.

c. 4음절어

간신간신, 겸사겸사, 기세등등, 대강대강, 대문대문, 만부득이, 미타미타, 박부득이, 연일연야, 지우금일, 지중지중, 차일피일, 흥성흥성.

d. 5음절어

천추만세후.

3.1 파생

한길(2010:125)에서는 “접두파생 과정을 통해 파생된 단어를 접두파생어라 하고, 접미파생 과정을 통해 파생된 단어를 접미파생어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4a)의 ‘도대체’를 만들기 위해 접두사 ‘도-’가 어기 ‘대체’(부사)에 결합되어 이루어지고, (4b)의 ‘가부간’을 만들기 위해 어기 ‘가부’가 접미사 ‘-간’에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4) a. 도-대체(都大體)

b. 가부-간(可否間)

우선 접두파생어에 대해 논의하겠다. 한자어에서 접두사는 주로 관형사와 어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기 전에 어기의 음절수의 접두사성에 대한 영향을 살피기로 한다. 형태와 의미를 가지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어기의 수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고, 1음절 어기와 결합되는 단어는 어근적 성격을 2음절 이상의 어기보다 더 많이 지니기 때문에 1음절 어기와 비1음절 어기에 결합된 한자어 부사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⁵⁾ (5)와 같이 접두사 뒤에 1음절 어기에 결합된 한자어 부사가 해당된다.

- (5) a. 무려(無慮), 무이(無異), 무진(無盡)
 b. 백배(百倍), 백번(百番), 백분(百分)

(5a)의 ‘려, 이, 진’은 자립성이 없는 어근으로 ‘무려, 무이, 무진’이 분리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5b)의 ‘배, 번, 분’은 자립적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5a)보다 더 쉽게 분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음절 이상의 어근과 결합되어 이루어진 부사보다 비생산적으로 본다.

- (6) 무-작정(無酌定), 무-조건(無條件)

(6)에서 제시된 ‘무’뒤에 다른 말을 넣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형사가 아닌 것으로 본다. ‘무’는 후행 어기만 수식하는 점에서 비관형사적 특징을 가진다. 또 ‘무’가 원의미의 변화를 겪지 않지만 어기의 범주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접두사로 본다. 따라서 (6a)보다 생산성을 더 뚜렷하게 드러낸다.

본장에는 접두한자어를 논의할 때 주로 비1음절 어기와 결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⁶⁾

- (7) 다불과(多不過), 도대체(都大體), 만부득이(萬不得已)

(7)에서 제시된 ‘다불과’는 접두사가 어기와 분리가 불가능하고⁷⁾, 어기만 수식이 가능하며, 접두사가 붙어도 의미가 변화하지 않는다. ‘불과’뒤에 ‘하다’결합이 가능하지만, 접두사 ‘다-’가 붙으면 ‘하다’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고유어와 결합이 가능하다. ‘도대체’는 접두사가 어기와 분리가 불가능하고, 어기만 수식이 가능하지만, 접두사가 붙으면 의미가 변화한다. ‘대체’뒤에 ‘-적’결합이 가능하지만, 접두사 ‘도-’가 붙으면 ‘-적’결합이 불가능하며, 고유어와 결합도 불가능하다. ‘만부득이’는 접두사가 어기와 분리가 불가능하고, 어기만 수식이 가능하지만, 접두사가 붙으면 의미가 변화한다. ‘만부득이’와 ‘부득이’뒤에 ‘하

5) 노명희,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파주: 태학사, 2007), 70쪽.

6) 같은 책, 89쪽.

7) 최규일, 『한국어 어형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9), 69쪽.

다'결합이 다 가능하다.

다음에 접미파생어에 대해 논의하겠다. 한자어에서 접미사는 주로 의존명사와 어근의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기 전에도 어기의 음절수가 접미사성에 대한 영향을 살펴기로 한다.

(8) a. 과시(果是), 종시(終是)

b. 기억-시(其亦是), 불과-시(不過是), 차역-시(此亦是)

접미파생어도 1음절 어근 뒤에 결합되는 것과 비1음절 뒤에 결합되는 것이 같은 한자더라도 기능적 차이와 생산성도 다르다. (8)의 한자어는 1음절 어근 뒤에 결합된 '시'와 2음절 어근 뒤에 결합된 '시'가 의미별로 차이가 없음으로 본다. (8a)의 '과시'와 '종시'의 어기 '과'와 '종'은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낮고 (8b)의 어기 '기억', '불과', '차역'은 사용빈도가 높아 (8a)보다 어휘 강도⁸⁾도 높다. 따라서 어휘강도와 어휘빈도는 '시'를 구별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될 것이다.

(9) 조만-간(早晚間)

(9)에서 제시된 '간'은 앞에 어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니기 때문에 의존명사와 구별하는 주된 기준이다. 어기가 '간'에 결합되더라도 범주와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간'은 단어의 첫 음절에 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미사인지는 아닌지 잘 판별할 수 없다. 그러나 구에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미사적 특성을 지닌다.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접미사를 논의할 때 주로 비1음절 어기와 결합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⁹⁾

(10) 매인당(每人當), 천세후(千歲後), 허다반(許多般)

(10)에서 제시된 '매인당'의 접미사는 어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니며, 어기가 '-당'에 결합되더라도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접미사가 붙으면 의미가 변화하

8) Bybee, J.L,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p.117.

9) 노명희(2007), 앞의 책, 89쪽.

다. ‘당’은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날 수 있으며, 구와 결합이 가능하다. 조사와 결합에 제약이 없다. ‘천세후’는 여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니며, 접미사가 붙으면 범주를 바꾸지 않고 의미도 변화지 않는다. ‘후’는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날 수 없지만, 구와 결합이 가능하다. 뒤에 조사 ‘는, 에’와 결합할 수 있다. ‘허다반’의 접미사는 여기에 대해 의존성을 지닌다. ‘허다’뒤에 ‘히’와 결합하여 부사가 되며, 여기 뒤에 ‘반’에 결합되어 ‘히’결합이 불가능하다. 접미사가 붙으면 의미가 변화지 않고 단어의 첫 음절에 나타날 수도 없다. 구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조사와 결합에 제약이 있다.

3.2 합성

한길(2010:118)에서 “합성법에 의해 이루어진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합성어는 계층적 구조¹⁰⁾가 파생어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합성어의 생산성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여기 중에 ‘명사+명사’ 합성어는 생산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계속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외래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고유어 합성어처럼¹¹⁾ 통사적과 비통사적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본고는 한길(2010:191)에 따라, 합성어의 유형은 크게 직접 구성 요소의 자립성 유무와 직접 구성 요소의 관계로 나누고 분석하기로 한다.

우선 직접 구성 요소의 자립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자립성에 따라 한자어 부사는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이 결합한 경우, 의존형식과 의존형식이 결합한 경우, 자립형식과 의존형식이 결합한 경우로 나눈다.

10) 오규환(외)(2015), 앞의 책, 23쪽.

11) 김일병(2000:168)에서는 한자어 합성어는 고유어 합성어와 다르게 어간, 어기 그리고 어기보다 큰 언어 단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근보다 더 큰 단위는 바로 단일어나 복합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고유어의 몇 가지 예들이 아래와 같다.

명사+명사: 손발 (통사적 합성법)

명사+동사: 겁나다, 맛보다 (통사적 합성법)

명사+형용사: 목마르다 (통사적 합성법)

부사+부사: 더욱더, 좀더 (통사적 합성법)

명사+ㄸ+명사: 오랫동안 (비통사적 합성법)

- (11) a. 대강대강(大綱大綱), 흥성흥성(興盛興盛)
 b. 간신간신(艱辛艱辛)
 c. 일일시시(日日時時)

(11a)는 ‘자립형식+자립형식’형 합성어이다. 직접 구성 요소들인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는 자립적인 자질을 지니며,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구성 성분들이 서로 결합되어 만든 것이다. 어간 ‘대강’은 독립성을 가진 단어이며, 어간의 반복으로 합성어를 이루어진다. ‘흥성’은 명사로 쓰일 때 자립성을 가지고, 동사 ‘흥성거리다’의 어근으로 쓰일 때 자립성을 지니지 않는다. ‘흥성’은 독립적인 명사로 쓰일 때 ‘흥성흥성’의 의미와 유사하기 때문에 ‘흥성흥성’은 ‘대강대강’처럼 어간의 반복으로 합성어를 이루어진다. (11b)는 ‘의존형식+의존형식’형 합성어이다. 직접 구성 요소들인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모두 자립성이 없는 의존형식끼리 결합되어 만든 것이다. 김일병(2000:178)에서의 “의존형식과 의존형식이 결합한 구성체를 합성어로 판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구성요소들이 자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어에는 의존형식으로 구성하는 단어는 각 구성 성분이 단어의 중심부로 기능하면 합성어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간신간신’반복 전의 형태는 ‘간신’으로 ‘간신하다’의 어근이며 단어의 중심부로 기능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근의 반복으로 합성어를 이루어진다. (11c)는 ‘자립형식+의존형식’형 합성어이다. ‘일일시시’의 내부구조는 사전에 ‘일일-시시’로 등재되고, ‘일일시시’는 ‘일시’의 반복 형태가 아니라 독립성을 지닌 ‘일’의 반복형과 의존명사 ‘시’의 반복형의 결합으로 합성어를 이루어진다.

다음에 직접 구성 요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의미 관계에 따라 합성 한자어 부사는 병렬 관계, 종속 관계, 반복 관계로 나눈다.

- (12) 유독(唯獨/惟獨), 항상(恒常)

(12)는 병렬 관계 합성어이다.¹²⁾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상호 대등 관계로 두 구성 요소를 결합하여 병렬구조를 구성한다. ‘유독’은 ‘유일’의 뜻인 부사어기 ‘唯’와 ‘홀로’의 뜻인 부사어기 ‘獨’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항상’은 ‘늘, 흔히’

12) 한길,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서울: 역락, 2010), 193쪽.

의 뜻인 부사어기 ‘恒’과 ‘자주, 때때로’의 뜻인 부사어기 ‘常’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13) 당각(當刻), 즉각(卽刻), 분명(分明), 일익(日益)

(13)은 종속 관계 합성어이다. 두 구성 요소 사이에 핵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결합되어 종속 구조를 구성한다. ‘당각’은 주변부와 핵심부 즉 수식과 피수식의 관계로 이룬다. ‘바로 그, 지금’의 뜻인 관형사어기 ‘當’과 ‘시간의 단위’의 뜻인 명사어기 ‘刻’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즉각’은 주변부와 핵심부의 관계로 이룬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의 뜻인 부사어기 ‘卽’과 ‘때, 시각’의 뜻인 명사어기 ‘刻’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분명’은 핵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로 이룬다. ‘분명’은 ‘구분하다’의 뜻인 동사어기 ‘分’과 ‘확실하다’의 뜻인 형용사어기 ‘明’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일익’은 주변부와 핵심부의 관계로 이룬다. ‘일익’은 ‘매일’의 뜻인 부사어기 ‘日’과 ‘늘어나다’의 동사어기 ‘益’으로 합하여 이루어진다.

- (14) a. 겸사겸사(兼事兼事), 미타미타(未妥未妥)
 b. 기연미연(其然未然), 차일피일(此日彼日)
 c. 기세등등(氣勢騰騰)

(14)는 반복 관계 합성어이다.¹³⁾ 한길(2010:202)에 따르면 반복 관계 합성어는 어근의 일부나 전체가 반복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a)는 전체 반복이고 (b)와 (c)는 부분 반복이다. 전체 반복은 어근이 전체적으로 중복되어 형성하는 반복법이고, 부분 반복은 어근의 일부분만 중복되어 형성하는 반복법이다. (14a)의 ‘겸사겸사’는 어간 ‘겸사’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며, 어간 전체가 반복하여 ‘ABAB형’ 합성어가 구성된다. 이는 ‘겸사’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미타미타’는 ‘미타하다’의 어근 ‘미타’가 반복하여 ‘ABAB형’ 합성어가 구성된다. 이는 ‘미타하다’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14b)의 ‘기연미연’은 ‘기연히’의 어근 ‘기연’과 명사인 ‘미연’이 결합되어 ‘ABCB형’ 합성어가 구성된다. 이는 ‘기

13) 이런 첨어는 병렬 관계 합성어에 속하는데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본고는 중첩 관계에 대해 따로 논의하기로 한다.

연'과 '미연'의 의미가 그대로 병렬되어 합성어의 의미를 이룬다. '차일피일'의 '피일'이 자립형식이 아니라서 반드시 명사 '차일'과 같이 쓰여야 'ABCB형' 합성어가 구성된다. '차일피일'은 '차일'과 '피일'의 의미 합계가 아니라 『표준』에 따라 "이 날 저 날 하고 자꾸 기한을 미루는 모양"이란 의미를 가진다. 이런 반복은 어근이 약간의 변동을 발생하여 구성된 반복이다.¹⁴⁾ (13c)의 '기세등등'의 내부구조는 사전에 '기세-등등'으로 등재되고, 이는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의 뜻인 명사어기 '기세'와 '등등하다'의 중심부 '등등'이 결합되어 'ABCC형' 합성어가 구성된다.¹⁵⁾

4. 한자어 부사의 비연쇄적 패턴

한자어 부사의 비연쇄적 패턴은 단어를 바탕으로 형태론적으로 서로 관련된 한자어 부사의 공통적인 자질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 패턴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연쇄적 패턴에는 어기변동, 중첩, 전환, 혼성어 등의 유형이 있다. 비연쇄적 패턴에 해당하는 국어 한자어 부사를 (15)와 같이 음절수로 정리하였다. 패턴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어 한자어 부사 중에 어기변동 현상이 없기 때문에 본장은 주로 전환, 중첩, 혼종어를 연구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15) a. 2음절어

각기, 각설, 간혹, 계속, 거개, 거반, 결국, 근본, 기설, 기왕, 내일, 누차, 누회, 다소, 단통, 단판, 당금, 대강, 대개, 대거, 대대, 대략, 대체, 대폭, 도통, 만만, 만분, 매가, 매개, 매월, 매초, 매회, 맹탕, 목금, 무등, 무론, 무중, 물론, 방금, 방장, 방재, 백판, 별단, 별양, 보통, 본래, 본시, 불원, 빈년, 사수, 사설, 상호, 생래, 생전, 소폭, 시방, 식일, 실상, 실제, 실지, 실총, 애연, 야

14) 한길(2010), 앞의 책, 204쪽.

15) 반복은 보통 전체 반복과 부분 반복으로 구성된다. '중중축축(重重矗矗), 중중첩첩(重重疊疊)'등 'AABB형'반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AABB형' 반복 전의 형태는 'AB형'인지 'A'의 중첩형 'AA'와 'B'의 중첩형 'BB'가 결합되어 구성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길(2010:205)에서는 'AABB형'반복은 이중 반복이라고 하였다. 즉 어근의 반복형이 다시 결합하여 이루어진 반복법이다.

야, 약간, 약혹, 연일, 왕왕, 원래, 원시, 원체, 이왕, 일간, 일시, 일일, 일양, 일체, 자연, 잠간, 잠시, 재도, 재차, 전부, 전혀, 중일, 주장, 즉금, 즉통, 지금, 직접, 진개, 천만, 천생, 천연, 첩경, 축삭, 축야, 축일, 축차, 편시, 필연, 한번, 한층, 혹자.

b. 3음절어

일층, 개개이, 거지반, 급자기, 다년간, 다소간, 당분간, 대부분, 매시간, 무작정, 무조건, 사실상, 성심껏, 성의껏, 열심히, 의당당, 일삼시, 잠시간, 정성껏, 제각각, 제각기, 진중일, 최대한, 최소한, 편시간, 한기신, 한중신, 한중일, 한천명, 한편생, 한없이, 호상간.

c. 4음절어

가랑없이, 간단간단, 간신간신, 구절구절, 기연미연, 기왕이면, 내일모레, 매일매일, 사설사설, 순간순간, 연일연야, 영구장천, 오매불망, 자세자세, 조목조목, 조밀조밀, 조심스레, 주저주저, 천방지축, 풍성풍성.

d. 5음절어

간혹가다가, 어차어피에.

4.1 전환

국어의 전환은 다른 형태론적 패턴과 달리 어기의 형식을 바꾸지 않고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연쇄적 패턴이다. 형태론적 패턴은 형식과 의미상의 부분적인 유사성을 지니기 때문에 전환은 이러한 정의에서 다소 느슨한 상황에서서만 형태론적 패턴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환하는 두 형식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국어에는 주로 두 어휘소를 연관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오규환(외)(2015:606)에서는 “전환(conversion)은 어기의 발음이 변화하지 않는 형태론적 패턴이다.”라고 정의하였다.

(16) a.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다.

b. 수업이 끝난 뒤,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16)의 ‘각기’는 명사와 부사의 전환이다. 이는 의미상의 연관성을 지니면서 품사로서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진다. 위의 예처럼 단어 어근이 같은 형태에 변환 없이 품사를 바꿈으로 전환한 것은 ‘품사 통용’¹⁶⁾에 해당한다.

한자어 부사 중 일부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이들은 문장 안에서 쓰이는 경우에 따라 품사가 달라진다. 여기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도대체 명사나 수사 등은 부사로 전환하는지 부사는 명사나 수사로 전환하는지 명확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전환은 단순히 어느 쪽부터 어느 쪽으로 영 변화 파생이 아니라 양방향 전환 과정의 대응이다. 『표준』에 의하면, 두 품사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많고, 4개의 품사가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한자어 부사의 모체에 따라 주로 ‘명사-부사’의 전환과 ‘수사-관형사-명사-부사’의 전환으로 이룬다.

『표준』에 제시된 표제어 중에 ‘명사-부사’의 전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환하는 명사와 부사는 단어 부류와 의미가 다르고, 음운론적 형식이 일치하다. 명사의 형태적 특성으로 보면 격조사와 접사의 결합이 가능하며, 통사적 특성으로 보면 자립성을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부사의 통사적 특성으로 보면 형용사와 동사 이외에도 관형사, 명사, 다른 부사, 구, 문장을 수식하기도 한다.

- (17) a. 사실로 나타나다/ 사실을 밝히다/ 사실과 관련이 없다/ 사실대로 말했다.
 b.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에 가서는 성공할 테니까 기운 내.
 c. 재산 전부를 대학의 장학금으로 내놓다/ 언덕은 전부가 숲이다/ 전부들 파이팅.
- (18) a.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b. 그는 결국 성공했다.
 c. 그 사람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17a)의 명사 ‘사실’은 조사와 결합하는 양상이다. 조사 ‘로’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조사 ‘을’과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장에서 목적어로 기능한다. 또한 ‘사실’은 격조사뿐만 아니라 보조사 ‘대로’와 결합하는 것도 가능하며, 문장에서 부사어로 기능할 수 있다. (18a)의 부사 ‘사실’은 구를 수식할 수 있으며,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자유스럽다.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부터 상황대로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는 부사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용언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부터 명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16) 송철의, 『파생어』(국립국어연구원, 11, 2001), 138쪽.

한길(2010:120)은 2음절 이상의 단어도 단일어에 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단일어에 속한다.

- (19) a. 그 사건을 매시간마다 보도했다/ 학생들은 매시간을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하다/ 매시간의 예정표를 만들자.
 b. 작업 중간 잠시간의 휴식/ 내 가슴은 잠시간에 가쁘게 두근거림을 느꼈다/ 잠시간 동안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어 다행이었다.
- (20) a. 매시간 약을 먹어야 하다.
 b. 나는 지우개를 잠시간 빌렸다.

(19a)의 명사 ‘매시간’은 보조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희정(2005:35)에 따르면 명사가 조사 없이 명사구로 쓰일 때 모두 다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9b)의 명사 ‘잠시간’에 조사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부사로 처리하면 무리가 있다. 이는 명사구로 쓰이며 ‘동안’을 수식한 것이다. (20)의 부사 ‘매시간’과 ‘잠시간’은 둘 다 동사를 수식한다.

연속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부터 시간대로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는 부사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용언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부터 명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형태론적 구성 방식에 따르면 이는 어기와 접사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파생어에 속한다.

- (21) a. 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다/ 하늘은 순간순간마다 향시 새롭게 느껴졌다/ 그는 앞과 뒤도 없이 오직 순간순간에 자기 전부를 투자했다.
 b. 연일연야로 공부를 한다.
- (22) a. 나는 순간순간 고향을 생각한다.
 b. 연일연야 적군의 포격 소리가 들린다.

(21a)의 명사 ‘순간순간’은 조사와 보조사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21b)의 명사 ‘연일연야’도 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22)의 부사 ‘순간순간’은 구를 수식하고, 부사 ‘연일연야’도 동사를 수식한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부터 시간대로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는 부사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용언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부터 명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형태론적 구성 방식에 따르면 이는 어간끼리 결합되어 이루어진 합성어에 속

한다.

『표준』에 제시된 표제어 중에 ‘수사-관형사-명사-부사’의 전환도 발견하였다. 명사와 부사의 특징을 앞에서 살핀 바가 있는데, 여기서 수사와 관형사의 특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는 형태적 특성으로 보면 활발한 조어력을 가지고, 통사적 특성으로 보면 조사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부사에 의해 수식을 받을 경우도 드러난다. 관형사는 격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할 수 없지만, 명사와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

- (23) a. 만만 리. [수사]
 만만 한 가지. [관형사]
 감사 만만이다. [명사]
 그는 노래를 만만 잘 부른다. [부사]
- b. 서울 인구가 천만을 넘는 지 오래다. [수사]
 천만 도민. [관형사]
 적이 천만이 오다/ 위험 천만이다. [명사]
 천만 다행이다. [부사]

(23a)의 수사 ‘만만’처럼 수량 단위의 명사 앞에 나타난 경우가 많다. 관형사 ‘만만’은 명사구를 수식한다. 명사 ‘만만’은 ‘N+이다’구문에서 서술어로 기능한다. 부사 ‘만만’은 뒤에 부사를 수식한다. 부사로 쓰일 때 형태론적 구조 측면으로 보면 ‘만만’은 단일어로 본다. (23b)의 명사 ‘천만’은 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형사 ‘천만’은 뒤에 명사를 수식한다. 명사 ‘천만’은 격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N+이다’구문에서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부사 ‘천만’은 뒤에 동사를 수식한다. 부사로 쓰일 때 형태론적 구조 측면으로 보면 ‘천만’도 단일어로 본다.

단위대로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는 수사, 관형사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부터 단위대로 피수식어의 뜻을 한정하는 부사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용언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부터 명사, 관형사,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 형태소 수에 따르면 이는 단일어에 속한다.

4.2 중첩

국어의 중첩¹⁷⁾은 형태론적 패턴 중에 상당히 보편적인 유형이다. 한자어 부사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반복은 규칙 지배적 현상이다. 부사의 경우는 이미자(2008:161)에서 “반복, 지속성, 강조 등의 상적 특성을 나타내는 방편으로 사용된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중첩 한자어 부사의 의미는 중첩 전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오규환(외)(2015:101)에서 “단어들은 형태론적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진 단어들의 공통적인 자질을 표상하는 것이고, 이는 관련된 단어들 사이의 공통된 자질만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단어와 추상적인 틀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정의에 따르면 본장에는 한자어 부사의 중첩을 기술하기 위해 단어들이 필요하다. 단어들을 통해 중첩은 크게 전체의 반복과 부분의 반복으로 나눈다.

(24) a. 영화는 3년 전부터 매일 일기를 쓴다.

매일매일 더 좋아진다.

b. 표정이 잠깐 주저로 굳어진다.

그가 가고 나서야 그녀는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말했다.

c. 번들거리고 반짝거리는 것이 하나 없이 풍성을 말한다.

내마다 맑은 물이 풍성풍성 한가롭게 흐른다.

(24)의 ‘매일매일’은 어간 ‘매일’이 국어에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사이며, 어간 전체적으로 반복하여 ‘ABAB형’ 첩어를 이루는 것이다. 『표준』에 의하면, ‘매일매일’은 ‘매일’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오규환(외)(2015:102)에 따르면 단어들은 발음, 통사론적 속성, 의미 정보로 포함한 점에서 ‘매일매일, 주저주저, 풍성풍성’의 어휘 내향이 유사하다. 그러나 단어들에 대응되지 않는 변형도 포함할 수 있다. 단어들은 관련이 있는 단어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공통점만 표현한다. 이런 단어들의 단어가 모두 ‘AB형’부터 ‘ABAB형’으로 어간 전체적인 반복을 통해 중첩 전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ABAB형’부터 ‘AB형’을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중첩은 주로 동음반복¹⁸⁾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동음첩어의 형태론적 특성은 어간 전체가 반

17) 이미자, 『한국어의 부분중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언어와 언어학』, 41, 2008), 162쪽.

복되고 단어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일치하게 구성된 것이다.

- (25) a. 일 3회 복용한다.
 b. 일일 달라지는 농촌의 모습.

(25)의 어간 ‘일’이 국어에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이며, 어간 전체적으로 반복하여 ‘AA형’ 접어를 이루는 것이다. 『표준』에 의하면, ‘일일’은 ‘일’을 강조하여 ‘하루하루마다’라는 뜻을 가진다. ‘일일’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는 단어들의 단어가 모두 ‘A형’부터 ‘AA형’으로 어간 전체적인 반복을 통해 중첩 전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AA형’부터 ‘A형’을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 (26) a. 자세히 가르쳐 준다.
 나중에 자세자세 이야기하겠다.
 b. 조밀히 다룬다.
 그 애는 어릴 적부터 장난감을 조밀조밀 주무르면서 뜯었다 붙였다 하기 좋아한다.
 c. 간단히 설명한다.
 나는 그들의 질문에 간단간단 응대했다.

(26a)의 ‘자세자세’는 한자어 어간 ‘자세(仔細)’는 『표준』에서 형용사 ‘자세하다’의 어근으로 정의되고, 뒤에 고유어 접미사 ‘-히’가 붙어 부사가 형성된다. 어근 부분을 중복하여 ‘ABAB형’ 동음접어를 형성한다. 『표준』에 의하면, ‘자세자세’는 ‘자세히’를 강조하여 ‘이주 자세히’라는 뜻을 지닌다. (26)의 ‘자세자세, 조밀조밀, 간단간단’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는 단어들의 단어가 모두 ‘AB+히’부터 ‘ABAB형’으로 어근 부분의 반복을 통해 중첩 전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ABAB형’부터 ‘AB+히’를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한글(2010:204)에 따르면 이런 중첩은 어근 부분의 동음 반복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 (27) a. 법은 의당 지켜야 한다.

18) 백원국, 『重疊語의 形態構造 研究』(명지어문학회, 17, 1986), 80쪽.

b. 빌린 것은 의당당 갚아야 한다.

(27)의 ‘의당’은 국어에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사이며, 어말 부분의 반복하여 ‘ABB형’접어를 이루는 것이다. 『표준』에 의하면, ‘의당당’은 ‘의당’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의당’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는 단어들의 단어가 모두 ‘AB형’부터 ‘ABB형’으로 어말 부분의 반복을 통해 중첩 전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ABB형’부터 ‘AB형’을 만드는 것도 허용된다. 한길(2010:204)에 따르면 이런 중첩은 어말 부분의 반복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어의 모든 어말 부분의 반복이 이 틀에 대응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화의 결과이다.¹⁹⁾

4.3 혼종어²⁰⁾

오규환(외)(2015:92)에 따르면 혼종어는 단어들을 통해 서로 다른 어종의 언어 요소를 결합하는 추가 유형이다. 노명희(2011:444)에서는 “혼종어(hybrid word)는 서로 다른 계통의 어종, 즉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라는 주장에 따르면 국어 혼종 한자어 부사는 서로 다른 어종의 언어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이다.

단어 형성은 이분적인 체계로 분석하고 합성과 파생을 나눌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어들이 있음을 학자들이 지적하였다. 따라서 혼종어를 기술하기 위해 단어들이 필요하다.

(28) 한-번(番), 한-변(便), 한-층(層)

(28) ‘한번, 한변, 한층’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접두고유어 ‘한-’이 한자어 명사에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

19) ‘가가호호(家家戶戶), 사사건건(事事件件)’ 등과 같은 ‘AABB형’중첩은 3장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전의 형태가 ‘AB형’인지 ‘A’의 중첩형 ‘AA’와 ‘B’의 중첩형 ‘BB’가 결합되어 구성하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중첩 패턴 중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0) 국어 ‘혼종어’에 관한 연구로 최근에 혼종어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룬 노명희(2011, 2012)를 참고할 수 있으며, 혼종어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는 육태화(1989), 최유숙(2014)을 참고할 수 있다

의 단어가 모두 명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접두사 첨가를 통해 형성된다.

- (29) a. 간간-이(間間-), 개개-이(箇箇-), 전전-이(這這-)
 b. 기왕-에(既往-), 이왕-에(已往-), 어차어피-에(於此於彼-)
 c. 대대-로(代代-), 절대-로(絶對-), 종래-로(從來-)

(29a)의 ‘간간이, 개개이, 전전이’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의존명사를 반복시키고 한자어 첨어가 된 다음에 접미고유어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가 모두 본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29b)의 ‘기왕에, 이왕에, 어차어피에’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한자어 부사에 접미고유어 ‘-에’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도 본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29c)의 ‘대대로, 절대로, 종래로’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한자어 부사에 접미고유어 ‘-로’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도 본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 (30) a. 가량-없이(假量--), 간단-없이(間斷--), 두서-없이(頭緒--)
 b. 가증-스레(可憎--), 인정-스레(人情--), 조심-스레(操心--)

(30a)의 ‘가량없이, 간단없이, 두서없이’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한자어 명사에 접미고유어 ‘-없-’이 결합되어 형용사가 형성된 후에 형용사 어간에 접미고유어 ‘-이’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가 모두 한자어 명사의 의미와 반대적이다. (30b)의 ‘가증스레, 인정스레, 조심스레’의 어휘 내향과 형태론적 규칙이 유사하다. 한자어 명사에 고유어 접미사 ‘-스레’²¹⁾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가 본래의 의미와 다르지 않다.

- (31) 간혹-가다가(間或-)

21) ‘-스레’는 접미사 ‘-스럽-’뒤에 ‘-이’가 붙일 때 ‘ㅂ’이 탈락하고 ‘-스레(스러이)’가 형성된다.

(31)과 같은 단어는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어기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가 모두 본래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고유어 어기에 결합을 통해 형성된다.

(32) 내일-모레(來日-)

(32)와 같은 단어는 한자어 어기와 고유어 어기가 결합되어 형성된 혼종어의 단어틀이다. 이런 단어틀의 단어가 모두 고유어의 의미와 다르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를 강조할 것이다.

5. 결론

국어 형태론적 패턴에는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는 연쇄적 패턴과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는 비연쇄적 패턴이 있다. 본고는 형태소가 순차적으로 배열하는 한자어 부사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연쇄적 패턴과 비연쇄적 패턴에 해당하는 것을 유형화하였다. 한자어 부사의 형태론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형태론적 패턴의 유형	분류	용례
연쇄적 패턴	파생	다불과(多不過), 가부간(可否間)
	합성	대강대강(大綱大綱), 항상(恒常)
비연쇄적 패턴	전환	사실(事實), 결국(結局)
	중첩	간단간단(簡單簡單), 매일매일(每日每日)
	혼종어	정성(精誠)-껏, 한-층(層)

한자어 부사의 연쇄적 패턴은 크게 파생과 합성으로 구성된다. 파생 한자어 부사는 주로 2음절 이상의 어기와 결합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접사의 판별기준에 따라 접두사와 접미사 설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성 한자어 부사는 크게 직접 구성 요소의 자립성 유무와 직접 구성 요소의 관계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한자어 부사의 비연쇄적 패턴은 전환, 중첩, 혼종어로 구성된다. 전환은 어기

의 형식이 같은 채 접사를 결합하지 않고 품사의 성질을 바꾸는 패턴이다. ‘명사-부사’의 통용과 ‘수사-관형사-명사-부사’의 통용이 있다. 중첩은 의미를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ABAB형’ 중첩, ‘AA형’ 중첩, ‘ABB형’ 중첩이 있다. 혼종어는 추가 유형으로 단어들을 통해 서로 다른 어종의 언어 요소 결합을 논의하였다.

국어 형태론적 패턴에 대한 연구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세밀한 분석으로 통해 연구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연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경기도: 집문당.
- 김다예. 2015. 「국어 혼종어 교육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일병. 2000. 「국어 합성어의 구조와 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김홍매. 2013. 「한국어 파생부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노명희. 2007.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파주: 태학사.
- 노명희. 2010. 「혼성어 형성 방식에 대한 고찰」. 국어학회. 58. 255-281.
- 노명희. 2011. 「혼종어 형성과 어종 제약」. 대동문화연구. 73. 443-472.
- 박지연. 2011. 「한일어 부사의 조어법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백원국. 1986. 「重疊語의 形態構造 研究」. 명지어문학회. 17. 59-92.
- 송철의. 2001. 「파생어」. 국립국어연구원. 11. 137-145.
- 오규환 (외)역. 2015. 『형태론의 이해』. 서울: 역락.
- 왕단단. 2011. 「현대 한국어 한자어부사에 대하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83-495.
- 유목상. 2007. 『한국어의 문법구조』. 서울: 한국문화사.
- 육태화. 1989. 「국어 혼종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이미자. 2008. 「한국어의 부분중첩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언어와 언어학』 41. 161-183.
- 이석주·이주행. 2005. 『국어학개론』. 서울: 대한교과서.
- 이익섭·채원. 1999. 『국어문법론 강의』. 서울: 학연사.
- 임연. 2015. 「현대 한자어 부사의 구조 및 특징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임홍빈. 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 1.
- 장흥권. 2005. 「우리 말의 혼종어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35. 10-14.
- 장흥권. 2014. 「우리 말 외래어연구에서 외래어와 혼종어를 갈라볼데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3. 17-24.
- 정민영. 1993. 「한자어계 혼종어의 형성유형」. 『어문연구』 21. 399-414.
- 정민영. 1994. 「국어 한자어의 부사 형성에 대하여」. 『어문연구』 11. 41-57.
- 채현식. 2001. 「한자어 연결 구성에 대하여」. 『형태론』 3권 2호. 241-263.
- 최규일. 1989. 「한국어 어형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유숙. 2014. 「현대국어 혼종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표시연. 2017. 「영어 형태소가 합성된 신조어 생성의 형태론적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학회. 42. 97-120.
- 한길. 2010. 『현대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역락.
- Bybee, J.L. 1985. Morphology. Amsterdam: John Benjamins.

□ Abstract

A study on morphological pattern of adverbs

DU, JING

The Korean morphological pattern has a cascade pattern in which morphemes are sequentially arranged and a non-cascade pattern in which morphemes are not sequentially arranged. In this paper, analyzes the formation process of adverbs arranged sequentially by morphemes, and try to typify those corresponding to cascade and non-cascade patterns.

When classified by pattern type, the cascade pattern of Sino-Korean adverbs consists of derivation and synthesis, and the nonconsecutive pattern consists of conversion, reduplication, and hybrid word.

The derivation Sino-Korean adverbs mainly discussed the prefix and suffix setting according to the criterion of the affix around the word which is combined with more than two syllable term. The types of synthetic Sino-Korean adverbs are divided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rect component independence and direct component.

Conversion is a pattern that changes the properties of parts of speech without combining affixes of the same form. There is a common use of 'noun - adverb' and 'rhetorical - idiomatic - noun - adverb'. Reduplication plays a role in reinforcing meaning. There is the 'ABAB-type' reduplication, 'AA-type' reduplication and 'ABB type' reduplication. Hybrid word was discussed as an additional type, combining the elements of different fish species through word frames.

[Key Words]

Sino-Korean adverbs, Morphological pattern, Concatenative, Non-concatenative, Word-schema

두 청



강원대학교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E-mail : ccdujing0416@naver.com

접수 일자: 2018. 02. 09

심사 수정: 2018. 03. 20

게재 결정: 2018. 03. 26
